



▲서귀포 정방폭포 인근에 자리한 이월중 미술관 3층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J E J U 자연에 반하고 예술에 빠지다

제주도 미술관·박물관으로 떠나는 아트투어

제주도를 찾는 이들의 여행 테마는 다양하다. 올레길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도 있고, 멋진 카페와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안도 다다오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둘러보는 아트 투어도 눈길을 끈다. 제주도 아트투어에서 만난 미술관과 박물관을 소개한다.

◇본태박물관과 방주교회

2012년 문을 연 본태박물관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박물관이다. 자수, 조각보, 쪽두 등 한국 전통 공예와 달리, 레제 등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고(故)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부인인 이행자씨가 설립한 박물관은 그녀가 오랫동안 수집한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본태(本態)는 '본래의 형태'를 뜻한다.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본태박물관을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도 다다오와 쿠사마 야요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물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노출 콘크리트가 특징으로 5개의 전시공간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관람은 기획전시실에서 5전시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만나는 건 불교와 생활 관련 소장품들이다. 이어지는 4전시실에서는 우리 전통 상례를 만날 수 있는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꽃상여와 쪽두의 미학'전이 열리고 있다.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상의 모습과 다양한 형상의 쪽두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사진 스카프로 인기가 높은 3전시실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이 상설전시된 공간이다. 그녀의 대표작 '호박' 시리즈 중 노란 호박이 전시돼 있으며 '무한 겨울방-영혼

본태박물관

건축가 안도 다다오 설계

노출 콘크리트에 5개 전시관

전통·현대 작품 한자리에

쿠사마 야요이 상설전

알중미술관

조선 백자 모티브 얻은 외관

야자수 어울린 이국적 풍경

꽃·나무 조각정원·아트숍

아라리오 뮤지엄 탐동시네마

극장 리모델링 현대미술 요람

백남준·앤디워홀 등 21명

15분거리 동문모텔1·2도

의 반쪽임, 2008'은 7-8명씩 온통 겨울로 제작된 방에 들어가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의 화려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기가 높다.

현대미술 작품을 만나는 2전시실은 독특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 관람한다. 이브 클라인의 '블루 YBK', 페르낭 레제의 '건설 노동자', 살바도르 달리의 '늘어진 세계', 백남준의 'TV첼로', 나라 요시토모 등 걸작들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2관에서 내다 보이는 산방산과 푸른 바다는 오래동안 마음에 남는다. 소반, 목가 구, 보자기 등 한국 전통수공예품을 전시

하는 1전시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야외공간도 놓치면 아깝다. 카페 본태에서 돈까스와 우동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 나누며 여유로움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입장료(2만원)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전시 시작 하나하나, 공간 구석구석 천천히 살펴며 건물의 매력과 작품 감상에 빠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본태박물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방주교회가 나온다. 제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티타늄으로 마감한 지붕과 건물을 둘러싼 수공간(水空間),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은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매년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예배가 없는 날에는 실내 공간도 둘러볼 수 있다.

◇알중미술관

이월중 작가는 20여년 전 제주에 정착 '제주생활의 중도와 연기'를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2013년 문을 연 알중미술관은 작업실로 활용하던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조선 백자에서 모티브를 지은 3층 건물이다. 설계는 스위스 건축가 다비드 머클로와 한국 건축가 한만원이 맡았다.

정방폭포 인근에 자리한 알중미술관은 그의 작품처럼 아기자기한 재미가 가득 담긴 공간이다.

작가가 직접 가꾼 꽃과 나무를 비롯해 조각 작품들이 즐비한 정원을 지나 만나는 미술관 1층에서는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주전시장은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자투리 공간에도 어김없이 그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 전시장에는 꽃과 새, 자동차, 동백꽃, 그리고 골프 등을 소재 삼아 화폭 가득 담아낸, 화사한 색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3층 야외공간은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이다. 제주도 남쪽 푸른바다와 쉼, 문섬 등

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고 야자수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은 이국적이다. 그의 화폭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 등을 소재로 만든 형형색색의 조각작품들과 직접 앉을 수도 있는 꽃의자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아트숍 등이 자리한 건물 2층 옥상에도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다.

◇아라리오 뮤지엄 탐동시네마

천안, 서울에 이어 문을 연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은 장엄자 김창일 회장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의 경우 모델, 영화관 등 폐건물을 활용한 공간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제주시에 위치한 아라리오 뮤지엄 탐동시네마는 2005년 폐관된 극장을 현대미술 요람으로 탈바꿈시켰다. 외벽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내부는 부서진 타일조각, 철근 구조물 등을 그대로 배치해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이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아라리오 뮤지엄 컬렉션으로 코헤이 나와, 백남준, 앤디워홀 등 모두 21명 작가의 53점이 전시돼 있다. 지하1층 지상 5층 등 6개 층을 활용한 전시는 8m가 넘는 대규모의 전시 공간부터 작은 구석공간까지 활용해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국내외 현대미술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실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듀에인 핸슨의 '벼룩시장 상인' 등의 작품은 특히 인상적이다.

탐동시네마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텔 2는 객실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문모텔 1은 병원에서 모델, 다시 전시공간으로 바뀐 공간이다. 동문모텔 1에서는 소장 컬렉션 전시, 모델2에서는 구본주 작가 전시회 '아빠 왔다'가 진행중이다.

/제주=글 사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



본태미술관에서 만나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전시실 모습.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